

Czech Republic
Masaryk University 체험수기

문호림

누구나 한번쯤은 유럽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'유럽은 비싸고 위험하다'라는 이미
지 때문에 결정이 망설여지곤 합니다. 아마 해외파견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
이런 고민을 갖고 있을 겁니다. 이처럼 고민하고 있을 분들께 제 수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
겠습니다.

1. 파견교 선정이유

- 1) 다른 유럽에 비해 '비교적' 싼 물가
 - 외식비 : 체코 >= 한국 ex) 1~1.7만원(파스타) / ~7천원(케밥, 패스트푸드)
 - 마트물가 : 한국 > 체코
- 2)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(스위스, 호주, 뉴질랜드, 헝가리)
 - 친구들과 대화하며 Slang표현, 구어체를 배울 수 있음.
영어를 배우기에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함.
 -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거의 없어서 유럽감성 낭랑하게 느낄 수 있음.
 - 현지인들이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 모두 친절했음.
3주동안 인종차별 당한 적 없음
- 3) 매주 주말 2박 3일(금~일) Vienna, Praha, Budapest 로 여행
 -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음.
 - 정해진 코스가 있지만 의무참여는 아니므로 원한다면 개인여행도 가능
 - 남들 다 방학때 일본갈때 나만 유럽가는 특별함(?)

2. 생활

- 1) 숙소
 - 학교 기숙사가 아닌 호스텔(Internesto, hotel jacob)을 빌려 기숙사처럼 사용
 - 층남대 기숙사와 비교해서 쾌적(희망시 1인1실 가능).
- 2) 수업
 - '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eats to Global Security'를 수강했는데,
타전공 학생이 수강해도 큰 지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관련학과가 유리하다고 생각.
 - 어느 과목이든 공통적으로 거의 매일 과제가 있음.
ex) 학습자료 읽고 에세이작성, 조별과제 및 발표
 - 한국과 달리 교수와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.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였음

3) 치안

- 소매치기나 잡상인은 전혀 없었고, 밤에도 안전하다고 느낌
실제로, 밤 10시 이후에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 꽤 있었음

3. 팁

- 1) 'h&m', 'ZARA'가 한국보다 세일상품 많고 종류 많음
- 2) 길거리 간판이나 안내문이 거의 체코어. 그리고 건물안에서 데이터 잘 안터짐
 - 오프라인 번역기 미리 다운로드 필요
 - 현지사람들 영어 잘 못함.(학생/교원 제외)
- 3) 학교활동 참여하면서 현금 쓸 경우가 있음. ex) 입장료
 - 현금(5만원정도) 준비 필요 + ATM수수료 생각보다 큼
- 4) 카드로 식당, 마트 등 대부분 결제가능
그러나 카드결제시 점원이 알아서 팁을 포함시켜 계산하므로 유의
- 5) 국제학생증으로 박물관이나 관광지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(하나은행 발급)